

2013년도 제6차 편집위원회

지난 12월 12일 롯데호텔에서 제6차 편집위원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한구 LG 부장, 최동원 SK텔레콤 차장 등이 참석해 지난 호에 대한 리뷰 및 편집기획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 신년교례회 및 SBS 초청 회원간담회



지난 1월 8일 플라자호텔에서 SBS 초청 회원간담회가 회원사 신년인사회와 겸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웅모 사장을

비롯한 SBS 신임 간부진과 이정치 광고주협회 회장 및 회원사 광고홍보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SBS의 보도 및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4년 제1차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협회는 오는 2월 12일(수) 오전 7시 30분 롯데호텔에서 '2014년 제1차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고 협회의 2014년 사업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4년 정기총회 개최

2014년 정기총회가 2월 27일(목) 오전 11시 30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홀 1층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3년 사업보고 및 결산, 2014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갑호 LG화학 전무 '광고인 대상' 수상



조갑호 LG화학 대외협력총괄 전무가 지난 12월 '2013 한경 광고대상'에서 '광고인 대상'을 수상했다. 1984년 LG화학에 입사, 화장품, 석유화학제품 영업부서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조 전무는 2001년 홍보팀장으로 발령, 대외협력담당 상무를 거쳐 2013년초 대외협력총괄 전무로 승진했다. 광고홍보 활동을 통해 LG화학의 앞선 기술력을 알려온 조 전무는 지난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제35회 에너지절약축진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선포식



지난 12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선포식

을 갖고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온라인 광고시장의 건전한 유통체계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도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및 사후 자율심의 등 자율규제가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검색결과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검색원칙을 공개하고, 전문서비스를 검색결과에 노출할 때 자사 서비스임을 명확히 구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광고도 안내문이나 음영 처리, 표식 등으로 일반 검색결과와 구분해야 한다. 공정위는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경쟁사업자 차별 및 배제, 기술·인력 탈취, 부당지원, 검색광고 영업활동 제약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의상료 등 모델 관련 경비, 촬영소품 보관료 등 광고제작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별도 경비를 광고대행사도 부담토록 했다. 또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안이나 시안은 원사업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계약금액의 10%를 선지급하도록 했다. 대금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용역수



행 시작 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으며, 검수기한과 대금지급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대금지급 기한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규정한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선정성 광고 노출 인터넷뉴스 사이트 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개월간 인터넷에서 선정성 광고를 본 적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4.6%가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선정성 광고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포털 사이트(17.4%), 개인 홈페이지(3.2%), 카페 등 동호인 사이트(2.4%), SNS(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또 홈페이지 방문 순위 순(랭키닷컴 2013년 9월1일 기준)으로 인터넷 뉴스 사이트 14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21.4%가 접근 제한 없이 선정적 광고를 무분별하게 올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사이트는 일반 뉴스 100개, 연예·오락 사이트 20개, 스포츠 사이트 20개 등이다. 이 중 스포츠뉴스 사이트가 40.0%(8개)로 선정적 광고가 가장 많았고, 연예·오락 35.0%(7개), 일반 뉴스 사이트 15.0%(15개) 순이었다.

[오리온] 마켓오 새광고



오리온이 꽃누나들의 잠꾼 이승기를 모델로 기용, 마켓오 신제품의 새광고를 선보인다. 신제품은 화이트 초콜릿 청크와 바닐라로 만든 '리얼브라우니 블론디'와, 덴마크산 카망베르치즈와 체다치즈가 들어간 '리얼치즈칩' 등 2종이다. 오리온은 이번 광고를 통해 이승기의 부드럽고 믿음직한 이미지를 통해 주 고객층인 2030 여성들에게 어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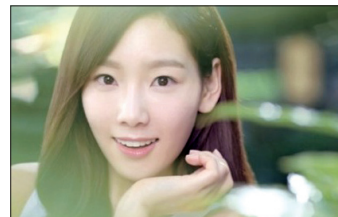
[코카콜라] '코카콜라로 마음을 전해요' 캠페인

코카콜라가 닥네임과 메시지로 라벨링된 이색적인 코-크를 선보이며 '코카콜라로 마음을 전해요' 캠페인을 펼쳐 소비자들 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무한도전 멤버 유재석, 정준하, 노홍철이 출연하는 새광고로 유쾌 상쾌한 기분을 선사하고 있



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128년간 사람들에게 행복 메시지를 전달해온 코카콜라가 2014년 우리의 속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을 전해요' 캠페인을 선보이게 됐다"며 "유재석, 정준하, 노홍철 세 명의 행복 메신저가 광고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를 전달하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기 바란다"고 전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모이스트 스팀크림 새광고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이 소녀시대 태연 을 모델로 '모이스트 스팀크림' 새광고를 선보인 다. 하와이에서 촬영이

진행된 이번 광고는 뷰티업계 최초로 항공 촬영을 시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청정 섬 카우아이섬에서 '자연이 감춰둔 축축한 고온스팀의 비밀'을 찾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하이트진로] 참이슬 새광고



참이슬이 배우 공효진을 모델로 새광고를 선보인다. 이번 광고에 서 공효진은 모델 겸 배우 이수혁 과 함께 젊은 남녀 커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전하며 맑고 깨끗한 매력을 발산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블리라는 닥네임처럼 러블리한 공효진의 매력을 통해 참이슬의 맑고 깨끗함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심] 비빔용기면 ‘하모니’ 새광고



농심은 신세대 비빔용기면 ‘하모니’ 모델로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김성균, 손호준, 민도희를 기용, 새광고를 선보인다. 농심 하모니는 국산 태양초 고추장과 숯불구이 맛이 조화를 이룬 차세대 비빔용기면이다. 작년 12

월 출시된 하모니는 출시 열흘 만에 50만개 이상 팔리며 비빔면 시장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CJ제일제당] 무첨가 무색소 ‘알래스카 연어’ 새광고



첨가물 제로, 100% 자연산 연어인 CJ제일제당 ‘알래스카 연어’가 신규 광고를 선보이며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와 대두

유, 정제수, 정제소금 외에는 아무 것도 넣지 않은 ‘무첨가, 무색소’ 연어캔 제품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광고에서 CJ제일제당은 ‘붉은 색소를 넣지 않고 만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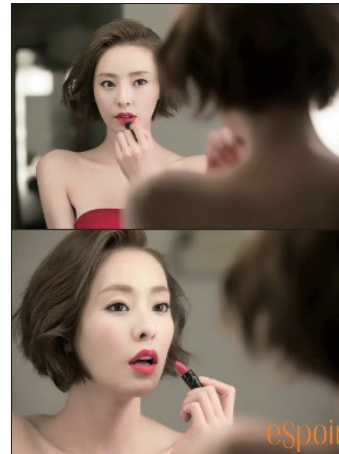
[아시아나항공] ‘FLY to’ 캠페인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이 직접 광고의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광고 ‘FLY to’ 캠페인을 선보였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광고’를 모토로, 여행담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마이크로 사이트(story.flyasiana.com)를

открыт,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감성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여행의 동반자’로서의 아시아나항공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에스쁘아 메이크업 화보



아모레퍼시픽 계열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에스쁘아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이다희를 모델로 기용, 메이크업 화보를 선보인다. 트렌디하고 시크한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다희는 다양한 컬러와 콘셉트를 소화해

내며 패셔너블한 에스쁘아의 메이크업 룩을 완성했다. 이번 메이크업 화보는 에스쁘아 공식 홈페이지와 각종 매거진 3월호를 통해 공개된다.

[팔도] 일품해물라면 새광고



오징어, 새우, 홍합, 미더덕 등 4가지 대표 해물이 들어가 얼큰하고 시원한 해물 맛을 뽐내는 팔도 ‘일품해물라면’이 개그콘서트 정태호, 김영희를 모델로 기용, 새광고를 선보인다. 팔도는 이번 광고를 통해 ‘해물 맛을 내기 위해 어렵게 해물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일품해물라면 하나면 해결 된다’는 메시지를 코믹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기홍 팔도 광고디자인팀장은 “신선한 광고표현 기법과 모델의 개성 있는 코믹연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재미있고 친근한 광고로 다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캠페인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 삼성전자가 올림픽 캠페인 런칭광고를 선보인다. ‘소치, 모두의 올림픽, 올림픽을 노트하다, 갤럭시 노트 3’라는 캐치프레이즈의 이번 광고는 역대 올림



픽,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로 구성된 '갤럭시 응원단'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지원하는 국민의 성원을 담아 소치 올림픽 경기장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국내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는 삼성

전자는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을 응원하며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스마트폰 'Gx' 새광고



LG유플러스가 '응답하라 1994'의 주인공 정우와 고아라를 모델로 기용, 스마트폰 'Gx'의 새광고를 선보인다. 이번 광고

는 '애인처럼 챙겨주는 Gx폰'을 콘셉트로 모닝콜, 날씨, 최첨단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며 때론 애인처럼, 때론 비서처럼 챙겨주는 Gx폰을 의인화해 표현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3 광고산업표준화백서' 발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2013 광고산업표준화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지상파 TV, 온라인, 모바일까지 매체별 광고표준화 현황을 집대성한 내용이 담겨 있다. 코바코측은 "백서의 발간 목적은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를 플랫폼으로 하는 국내 광고시장 변화에 맞춰 국내 광고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와 기술의 표준화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노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협의회 발족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적인 광고 거장 밥 이셔우드(Bob Isherwood)를 전격 영입,

그와 이노션 15개 해외 법인의 ECD들로 구성된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협의회(Global Creative Council, 이하 GCC)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호주 국적의 밥 이셔우드는 사치앤사치(Saatchi&Saatchi) 월드와이드 크리에이티브 최고책임자를 역임하며 8,000여 개에 달하는 수상경력을 기록한 바 있는 인물이다. 앞으로 이노션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어드바이저(Global Creative Advisor) 겸 GCC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노션이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회사로 도약할 수 있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SK플래닛 M&C부문] 정기간행물 'C-Insight vol.3' 발간



SK플래닛 M&C부문은 2월 3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정기간행물 <C-Insight> vol. 3을 발간한다.

이번에 발간할 <C-Insight> vol. 3은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컴퓨팅, AR(증강현실) 등 다양한 서비스 출현 및 발달로 인해 소비자 스스로 정보를 생산, 전파하는 디지털 네

트워크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도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결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 2014년 키워드를 속전속결 소비주의(Fast-Choicism)로 선정했다.

[한국경제신문] 여직원 휴게실 오픈



한국경제신문은 휴식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여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여사원 휴게실'을 만들었다. 편집

국에 마련된 휴게실은 온돌바닥에 점심시간에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도록 침구류도 마련돼 있다. 회사 측은 조만간 출산한 여직원들을 위한 수유공간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관계자는 "여직원들은 남성 직원들과는 달리 아무 곳에서나 쉴 수 없다"며 "최근 여직원들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별도 휴식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